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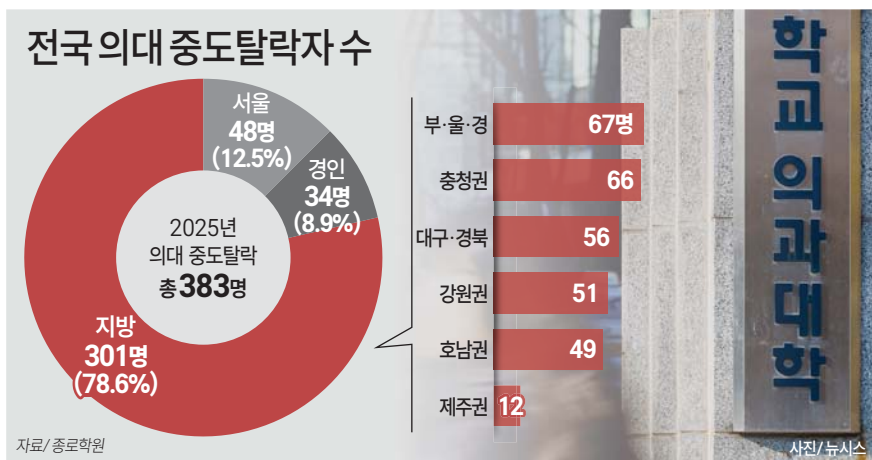
“수도권 의대 재도전 할래요” 의대 중도탈락 80% ‘지방권’

전국 의과대학 중도탈락 383명
정원확대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수도권 의대 재진입 시도 원인
“지역의사제 도입시 이동 증가”

지방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의대 정원 확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지역 인재전형 확대에 따라 지방의대 진학자가 늘면서 수도권 의대 등에 다시 도전하는 학생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일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가 지난달 29일 공시한 대학별 중도 탈락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383명 가운데 301명(78.6%)이 지방권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권역에서는 서울권 48명(12.5%), 경인권 34명(8.9%)에 그쳤다. 지방권 중도 탈락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전인 2022년(138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종로학원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고 분석했다.

지방권 안에서도 편차가 컸다. ▲부산·울산·경남 67명 ▲충청권 66명 ▲대구·경북 56명 ▲강원권 51명 ▲호남권 49명 ▲제주권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권은 2022년 각각 27명, 28명, 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광대 18명 ▲경상국립대·단국대(천안) 각 17명 ▲한양대 16명이 뒤를 이었다. 중도탈락자 상위 5개 대학 중 4곳이 지방권 의대였다.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건양대는 각 2명으

로 전국에서 중도탈락자가 가장 적었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의대 중도탈락자 다수가 수도권 의대로의 재진입을 시도한 점을 원인으로 내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권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 의대 진학이 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의대 재진입에 나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내년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현재까지의 추세를 고려했을 때, 상위권 의대로의 이동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서울 학생 31명, 11개 언어로 꿈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이중언어 페스티벌’
창작웹툰 전시, 문화다양성 체험도

서울 초·중·고 학생 31명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 등 두 개 언어로 자신의 경험과 꿈, 가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서울시교육청 1층 시청각실과 로비에서 ‘이중언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무대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초·중·고 학생 18명과 중·고등학생 13명 등 총 31명이 오른다. 학생들은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일본어를 비롯해 캄보디아어·파슈토어·타밀어·태국어·우르두어·타갈로그어 등 총 11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한다.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두 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중언어 말하기’를 중심으로 창작 웹툰 전시와 문화다양성 체험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중언어 말하기는 초·중·고·고등부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들은 취미·진로·학교 생활 등 자신의 이야기와 좋아하는 한국 문화, 한국어 또는 이중언어를 배운 경

험, 좋아하는 사람 등을 주제로 먼저 한국어로 발표한 뒤 같은 내용을 부모의 모국어로 발표한다.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경험을 작품으로 접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교육청 1층 로비에서는 참가 학생들의 이중언어 발표 원고와 ‘다름과 존중’,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제작된 학생 창작 웹툰 수상작 9편을 전시한다.

참여형 문화다양성 체험인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알고리즘’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르고 서로를 연결해 하나의 공동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과 관계의 의미를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즉석 기념사진 촬영과 관람 소감·메시지 남기기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본선 참가자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학급·동아리 단위로 이중언어 말하기 발표를 관람하고 작품 전시와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연구팀, 빛으로 암 진단 기술 개발

화학과 주재범 교수 연구팀
항체 대신 MIP 적용, EV 선별

중앙대 연구팀이 항체 없이도 암의 흔적을 빛으로 포착해 내는 정밀 진단 기술을 구현했다.

중앙대는 화학과 주재범 교수 연구팀이 액체생검에 활용되는 세포 외 소포체(EV)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정량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중국과 학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중앙대 화학과 Jiadong Chen 박사와 정생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EV는 단백질과 유전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혈액이나 소변 등 체액에서 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다. 다만 크기가 작

고 여러 물질과 섞여 있어 특정 EV만 골라내 측정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항체 대신 분자각인고분자(MIP)를 활용해 원하는 EV를 골라 포획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특정 표적의 구조와 화학적 특성을 본떠 만든 MIP가 표적 EV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극소량의 용액 방울로 각인층을 만드는 ‘단일 미세액적 각인’ 방식도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시약 사용량을 약 285분의 1로 줄였고 제작 시간도 약 6배 단축했다. 반복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도 4% 미만으로 낮췄다.

연구팀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빛의 변화를 측정하는 표면증강라만산란(SERS) 기술도 더했다. 실제 전처리하지 않은 소변 35 μL를 활용해 EV를 정량 분석하고 1 μL당 약 317개 입자 수준까지 검출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런 ‘5주년’… 누적 대학합격자 2840명

서울런 가입자 9000명→4만4000명
올해 914명 대학 합격… 역대 최대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가입자가 출범 5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서울런 이용자의 대학 합격자는 누적 2840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914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런 가입자는 4만4000여명으로, 출범 첫해인 2021년 9069명의 약 5배로 증가했다. 연도별 가입자는 2022년 1만7640명, 2023년 2만2924명, 2024년 3만1179명, 2025년 3만764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대입 합격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런 진학 조사 결과 대학 합격자는 2023학년도 462명에서 2024학년도 682명, 2025

학년도 782명, 2026학년도 914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누적 합격자는 2840명이다.

서울런 이용자의 학습역량과 학습태도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 조사에서 학습역량은 2022년 75점에서 2025년 83점으로, 학습태도는 같은 기간 75점에서 85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서울런 이용 전보다 0.36등급 올랐다.

진학뿐 아니라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었다. 올해 초 실시한 진로·진학 조사에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답한 이용자는 75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한 응답자의 95%는 서울런을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답

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생 이상 서울런 회원 19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런 멘토링은 학습 지도와 학습습관 형성, 진로 탐색,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멘티 만족도는 95%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대학생과 시니어 등 멘토 16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서울런 수혜 가능 인원은 약 12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었다.

서울런 정책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충북과 경기 김포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현진 기자 lhy@

고양시, 초가을 숲에서 가족과 자연 체험

곤충관찰, 보물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

고양시가 초가을을 맞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숲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일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과 정발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숲에서 만나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숲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부모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안곡습지 유아숲체험원에서는 ‘곤충과

만나요’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들이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숲에서 만난 자연물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등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발산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숲에서 놀자!’를 주제로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숲속 보물찾기 등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가 마련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메트로 한줄뉴스



▲태풍 사우델 강타한 中…장시성 산사태로 1명 사망·11명 실종
▲아·태 미디어 고위급 포럼 ‘선전 컨센서스’ 발표…“협력으로 신뢰 위기 대응”
/사진 뉴스스

▲핀란드, 2차대전 후 최대 민방위 훈련…러 위협에 대비
▲트럼프 “푸틴, 나토 공격 생각 없어”…‘獨공화 사보타주’ 의혹 일출

▲트럼프, 텍사스 상원 선거에 1000만 달러 투입…공화당 수성 총력
▲공교 킨샤사 결혼 파티에서 화재로 22명 사망…건물 복도 좁아 대피 못해